

알고보니 회생채권자 아닐 때, 돈 갚아야 하나?



박 규 익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요새는 채권, 채무관계가 과거보다 복잡한 경우가 많다. 특히 자산유동화 거래나 신탁 등이 거래에 포함돼 있는 경우, 실제로 누구에게 채권을 변제해야 하는지 알기 매우 어려울 수 있다. 이번 사례도 그런 경우다.

주식회사 A는 B 은행으로부터 신탁 방식의 자산유동화 거래를 실행하기로 했고, 유동화대출거래를 위한 특수목적법인으로 C가 설립되었다. C 법인은 대주들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B은행을 거쳐 주식회사 A에게 자금을 조달했다. 이후 주식회사 A가 회생절차에 접어들게 되자 B은행과 C법인이 각각 조달한 자금을 근거로 회생채권을 신고했다. A는 C법인을 회생채권자로 인정하되 B의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권을 부인했고, 그대로 회생채권자표가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후 주식회사 A가 “위 회생채권의 채권이 실제로 B은행의 것이지 C법인의 것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회생채권자표에 회생채권자로 기재된 C법인을 상대로 회생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채무자회생법에서는 ‘회생채권에 기해 회생계획에 의해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의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본다. 확정된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내용은 확정판결과 같이 불가쟁의 효력을 가진다. 즉, 그 기재된 내용을 부정하거나 모순된 주장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첫 번째, 주식회사 A의 소송은 이미 확정된 회생채권자표의 기재를 부정하는 주장이므로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일까? 그건 아니다. 불가쟁의 효력은 회생절차 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회생채권자표의 기재는 언제든 진실된 채권, 채무관계와 다를 수 있고 회생절차 밖에서 민사상 권리의 존재를 다투는 것까지 금지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두 번째, 주식회사 A는 스스로 C법인을 회생채권자로 인정하고 B 은행의 회생채권자 지위를 부인했다. 실제로 유동화대출거래에 다수의 거래당사자가 개입되어 있어 채권자 확정에 복잡한 측면이 있는 상황이었다. B 은행은 주식회사 A가 C법인을 회생채권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회생절차 내에서의 채권자 지위를 상실한 채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도

받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와 주식회사 A가 C법인의 회생채권자 지위를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상식적으로 주식회사 A의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져도 되는 것일까?

우리 민법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갖고 있다.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위사안에서 대법원은 주식회사 A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B은행이 회생채권자 지위의 상실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A 주식회사가 이해관계자인 C법인을 해당 채권에 대한 채권자로 인정했기 때문인데, 이를 뒤집고 C법인에 대한 회생채권자 지위를 부인하는 것은 B은행과 C법인의 신의에 반하는 주장이고,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알고보니 진정한 채권자가 아닌 C법인이라도, 이런 경우 주식회사 A는 회생계획에 따라 C법인에 성실히 변제해야 한다. 복잡한 금융거래가 관여되어 있는 상황에서 회생채권을 확정함에 있어 채무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성실하게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법무법인 바른

금융해킹, 과징금이 능사일까



기지 수첩

안 재 선
(유통&라이프부)

제2 금융을 중심으로 해킹 피해가 반복되면서, 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시스템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는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기업에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7월부터 8월 말까지 고작 두 달 남짓한 기간 동안, SGI서울보증에 이어 웰컴저축은행, 롯데카드까지 제2 금융권에 서만 3건의 해킹 피해가 잇따랐다.

금융당국은 칼을 빼 들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보안사고를 낸 은행권에 최대 200억원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디지털 금융보안법’의 초안을 마련,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은행권에 자율적으로 보안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

하는 동시에 사후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금융사고가 제2 금융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미뤄보면, 현실적으로 과징금 부과가 능사는 아니다. 특히, 제2 금융권 중 중소형 기업은 보안체계를 자율적으로 구축해 금융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금융 보안 체계를 자체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곳에 사후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에 불과하다.

업계 관계자는 “제2 금융 중에서도 작은 기업의 경우 재무를 관리하는 인력조차 부족한 곳이 있다”며 “이들이 금융 보안 사고에 가장 취약할 텐데, 여기에 보안 체계를 스스로 구축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주요 대형 금융권 사이에서는 사이버 해킹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로트러스트’ 보안 모델이 부상하고 있다. 제로트러스트는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기조 아래 모든 접근 요청에 대해 확인 및 인증 절차를 거쳐 최소한의 접근만 허용하는 보안 모델이다.

문제는 초기 구축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IT업계에 있는 한 관계자는 “제로트러스트의 경우 이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초기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간다”며 “또, 도입했다고 끝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와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경우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현실에 맞는 적절한 처방이 필요하다. 사후 규제를 가하기 전에 중소형 은행을 대상으로 보안 시스템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 외양간을 고치는 것보다 소를 잃지 않는 것이 먼저기 때문이다.

/wotjs4187@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9월 8일 (음 9월 17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신규투자는 신중. 48년생 어려운 사국이지만 태양은 늘 누구에게나 비추게 마련. 60년생 욕심내면 마음만 다친다. 72년생 얼룩이 발견되면 처리해야 하는데. 84년생 살아보니 무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불황도 기회가 된다.



37년생 사회생활은 공식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49년생 누구가의 도움으로 오후 재물 들어온다. 61년생 비뻔한 일을 만나면 먼저 발등을 손질. 76년생 실패한 거사가니겠는가. 85년생 나이는 공로로 먹는 게 아니니 나이 값을 해라.



38년생 인생은 각본 있는 드라마. 50년생 뜻대로 되는 일이 펼쳐진다. 62년생 재물이 부족한 팔자는 남보다 가난한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74년생 실력이 승부를 결정하지는 않겠으나. 86년생 봄꽃이 지천이니 내 마음도 봄.



39년생 가정의 화목이 우선이라 했는데. 51년생 자신의 인생이라 해도 남의 시선은 생각해야. 63년생 발등을 찍는 것은 도끼가 아니라 바로 자신. 75년생 부지런하면서 분수를 지키면 보통은 간다. 87년생 환경을 탓하며 고인하지 말라.



40년생 결혼한 자에게 부부일 간섭은 관계를 악화시킨다. 52년생 위기를 기회로 필승전략을 세우자. 64년생 꿈을 얻으려면 먼저 발등을 손질. 76년생 실패한 거사는 돌아보지 마라. 88년생 생각지도 못한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



41년생 가지 못한 길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53년생 운이 상승하니 무슨 일이든 시작. 65년생 보기 싫은 사람도 때로는 아쉽다. 77년생 공은 둥글다는 말이 있으니 기회는 공평. 89년생 누구도 예상 못한 일이 생기는 게 인생이다.



42년생 모두 좋을 수는 없으니 하나는 양보. 54년생 기다리던 곳에서 소식이 온다. 66년생 임시방편으로 한 일이 좋은 결과. 78년생 복 받을 일을 해야 복이 들어오는 것 아니겠는가. 90년생 물건은 새것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



43년생 영업발전 소득발생. 55년생 과유불급이니 지나친 음주과식하지 마라. 67년생 세상의 틀은 있지만 알 수가 없다. 79년생 불행 말고 퇴근하고 부모님을 살피도록. 91년생 공덕은 부메랑처럼 나를 찾아와 복된 운세를 불러들인다.



44년생 자연은 노력하는 사람에게 공평하니 크게 걱정할 것 없다. 56년생 오후 음주는 금물. 68년생 아직보다는 실력을 기우자. 80년생 굶은 길에서 선두를 추월하는 이 치료 기회는 오기마련. 92년생 인생의 1순위는 항상 자신일 수밖에.



45년생 조상님의 제사를 정성으로 하면 나에게 축복이다. 57년생 문서 운이 있으니 양피의 도움으로 거래성사. 69년생 양보로 얻겨있던 실타래가 풀린다. 81년생 저녁 7시 불길하니 다루지 마라. 93년생 어제의 고난이 오늘 힘을 가져온다.



46년생 바쁜 친구에게 전화질 말라. 58년생 동료를 시기하는 마음은 내복을 차버리는 행동인데. 70년생 두려움이 기도를 거치면 용기가 된다. 82년생 세속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은 없으니 준비하고 기다리자. 94년생 병도 약도 다 내가 할 탓.



47년생 무시를 해도 일단 견뎌내는 것이 중요하다. 59년생 수입이 많이 늘어난다. 71년생 회사에서 내 것 아닌 것도 아끼는 작은 배려를. 83년생 오늘 못하면 내일이 있으니 조금해하지 마라. 95년생 곧은일이 생겨서 웬만해서는 아프지 않다.



김상회의四季

도화, 귀문

말 오후의 불침화針(바늘침)은 색정 문제로 인한 고난을 예고하여 욕궁화기는 사치와 허영을 암시하니 유의할 일이다. 귀문은 팔괘八卦(여덟팔,괘)에서 비롯됐다. 육신의 경계를 초탈하지 않는 한 우리는 모두 땅을 밟고 산다. 그래서 인간은 우주를 보고 그릴 수는 있지만 평면의 속박은 벗어날 수가 없다. 풍수風水의 기본으로 동서불배東西不配合의 원칙이 있는데 이를命理에 적용해서 대궁對宮을 정하면 지지支 상호간에 될 수 있으면 보아서 안 될 鬼門과 원진怨憤(원망할 원,성발진)의 글자 조합이 성립된다. 인간의 기이奇異(기할기,다름이) 한 심리적 변화가 증폭되는 글자 조합이다. =鬼門은 인간관계에서 끊임없는 다툼 불화를 야기하고 두뇌와 심리상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살성으로 두뇌 회전이 신속하지만 심리적 원인으로 일어나는 신경 기능의 이상을 일으킨다. 운이 나쁘면 성적 도착증이나 비탄에 빠져 심하면 자살을 감행하는 동기가 작용된다.

오늘은 도화의 날로, 도화하면 우선 색이 생각났는데 색정을 너무 밝히면 남녀공이 어느날 하체를 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 평소 건강을 점검해보자. 반면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나 상당한 기술력의 직업을 가지려고 애쓴다면 명예 기술 체육계 기타문화계의 상징인 자유로움을 인수인 질서로 끌어안게 되고 음기淫氣(음란함)를 정화함으로써 상당한 명예를 얻고 고위직에 오르게 된다. 끊임없는 바람이 있다면 그 바람을 한, 기도자에게 들어주게 된다. 부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도 神의 세계는 있었으며 산신기도 용왕기도 조상기도 칠성기도등 우리나라의 토속신앙을 대표하는 기도가 되어 왔다. 이렇듯 유전자적인 귀문 원진 선함과 숙명적 흥의는 신앙信仰으로 극복할 수가 있음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749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1853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하루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각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스도쿠 3650

스도쿠 110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미스를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9	7	1	8	6	2	8	9
8	6	2	1	8	9	7	8
6	8	9	8	9	2	1	7
8	1	7	2	1	8	6	9
9	8	7	1	8	9	2	6
2	9	8	6	9	7	8	1
7	8	6	9	2	9	8	1
8	2	9	7	1	8	6	2
1	9	8	6	2	7	9	2

7	8	9	2	8	1	6
8	2	1	9	8	6	9
8	7	6	9	1	8	2
6	9	2	8	1	7	8
8	1	2	8	6	9	7
9	9	8	2	7	1	6
9	8	7	6	2	8	9
1	6	9	7	2	9	8
2	8	1	9	8	6	7